

2021 추석가정예배문

가족과 함께 뜻깊은 명절 연휴를 보내는 방법

가정예배 드리기

추석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가정예배서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②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예배 순서지를 따라 인도합니다.

③ 가족들이 성경봉독과 대표기도순서를 맡아 진행합니다.

④ 설교가 어려우시면 가정예배서의 내용을 활용해 주세요.

⑤ 예배 후 서로의 기도제목 또는 그동안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 더욱 풍성한 가정예배가 될 것입니다.



① 예배초청 인도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② 찬송가 406장(통 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다함께

③ 기도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인도자

④ 성경봉독 시편 23:1-6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⑤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있노라면 대관령 목장처럼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있고, 깨끗한 샘물 주위로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초원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라는 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 소설가 새뮤얼 랭혼 클레먼스(Samuel Langhorne Clemens)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후 ‘이스라엘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광야 자갈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양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업의 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택근무와 비대면수업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다툼도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일상이 무너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중한 이를 잃고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나머지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와 결핍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초원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인생을 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쉴 곳이 부족한 척박한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기자는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기에 양이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으나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2절). 양은 자신이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3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으나 그때는 목자가 가장 가까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4절). 목자는 양의 상처를 치료하고, 해로운 벌레나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기름을 빌라줍니다(5). 그리고 이러한 보살핌은 양의 평생동안 계속됩니다(6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11).

그 선한 목자가 지금 여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간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⑥ 기도 인도자

⑦ 찬송가 301장(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⑧ 축복의 시간 가족 모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⑨ 주기도문 다같이

⑩ 폐회 인도자

